엔지니어링기술 미국의존도 심화

95년 기술도입 177건중 90건으로 74% 차지 … 일본 9.9% 불과

주요 국가별 · 계약기간별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실적(1995)

(단위: 건, 1000달러)

국가 \ 계약기간		6개월 이하	1년 이하	2년 이하	3년 이하	5년 이하	5년 초과	계
미 국	건수	12	13	24	8	12	21	90
	금액	14,511	23,012	116,827	23,880	133,939	186,702	498,872
일 본	건수	3	7	12	1	-	1	24
	금액	1,762	8,351	48,407	1,534	-	6,500	63,486
독 일	건수	1	3	2	3	-	2	11
	금액	1,964	6,713	10,070	3,789	-	2,536	25,072
프랑스	건수	3	-	3	1	6	2	15
	금액	2,473	-	3,088	597	13,567	6,881	26,606
영 국	건수	4	2	3	3	2	-	14
	금액	8,623	1,947	11,972	7,251	9,100	-	38,894
합 계	건수	23	33	51	22	22	26	177
	금액	29,333	46,499	193,650	42,765	159,984	202,619	674,850

엔지니어링기술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.

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따르면, 95년 국내기업들이 체결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은 총 177건 6억7484만달러로 94년의 164건 5억1200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7.9%, 금액으로는 31.8% 증가했다.

이 가운데 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90건, 4억9887만달러로 건수면에서 전체의 74%에 달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반면 일본과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은 24건, 6348만달러로 전체의 9.4%에 불과하며 독일이 11건 2507만달러 3.7%, 프랑스가 15건 2660만달러 3.9%, 영국이 14건 3889만달러 5.8%에 그쳤다.

<화학저널 1996/2/26>